

##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2주년 추모식

### 추 모 사

오늘은 고하선생님의 122주년 탄신일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사모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국립현충원에 모셔진 선생님의 유택(幽宅)앞에 모여 존경하는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의 숭고한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는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경기속에서도 국민적인 단결과 전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2011. 12. 5.자로 무역거래 1조 \$를 달성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금년 들어 한미 FTA가 발효되었고, 지난 3월 26, 27일에는 서울에서 세계 주요 53개국과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핵물질의 감축과 핵테러의 차단을 위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국격(國格)을 크게 향상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저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은 국내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에 따라 앞으로 국정안정과 민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제19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오는 12월 19일에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총괄해나갈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하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는 선생님께서 일제의 암흑시기에도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동아일보의 총수(總帥)로서 영광된 새나라 세우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셨던 문맹퇴치운동(文盲退治運動)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 민립대학설립운동(民立大學設立運動) 등의 애국운동 전개와 단군성적(檀君聖蹟)의 조사,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李忠武公遺蹟保存運動) 등을 전개하셨음을 볼 때 저희들은 현재 우리시대의 역사발전과정에서 갖는 선생님께서 펼치신 선견(先見) 선각(先覺) 선두(先頭) 그리고 역사의 선구자역할과 그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슴속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사실을 몇 가지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아끼시고 정열(情熱)을 쏟으셨던 동아일보가 김재호(金載昊)사장 체제로서 계속해서 크게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금년 4월로서 창간 92주년을 맞는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에 개국한 “채널A”와 함께 신문, 방송, 출판, 인터넷, 모바일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미디어그룹으로서 더 넓은 세상과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향해 크게 비상하고 있으며 김재호 사장님은 지난 3월 15일 제43대 신문협회 회장으로 재선추대되었습니다.

담양에서는 정부와 전라남도 및 담양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생님의 생가복원을 완료하였으며 근대역사문화교육관(近代歷史文化教育館) 설치와 필요부지의 확보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 오늘 존경하는 중앙고등학교(中央高等學校) 권기준(權奇俊)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약전(略傳)을 봉독해주셨으며 윤두섭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과 안홍순 광복회 부회장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진덕규(陳德奎)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고하 송진우선생의 민족과 민족이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추모강연(追慕講演)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를 대표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손이신 송상현 박사는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이 격화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인류사회(人類社會)의 평화와 질서유지가 절실한 중요한 시기에 그간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서 3년 임기중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지난 3월 11일에는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절대다수의 지지로 국제형사재판소장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박사는 오래전부터 바쁘신 중에도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부회장의 임무까지 수행해왔는데 이번에 그 회장으로 선임됨으로서 송박사가 중요국제기구의 수장을 두 개나 겸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반기문(潘基文) 유엔사무총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고하(古下) 선생님

선생님께서서는 평생을 항일, 반공, 민주투쟁에 몸바치셨고 특히 동아일보 창간(創刊)후 인촌 김성수 선생(仁村金性洙先生)님과 함께 민족언론 민족교육 민족문화 민족산업의 발전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진력하시어 오늘날 발전된 조국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기초를 쌓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의 굳은 신념과 불굴의 도전정신, 독립정신, 애국애족정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들은 선생님의 굳은 신념과 애족 애국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굳게 뭉쳐 이 나라를 부강한 자유민주국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꿔 나가겠사오니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12년 5월 8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